

다산포럼

소인정치(小人政治)와 유속(流俗)



김동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의 공공성이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삼스럽지도, 놀랍지도 않다. 이 사회는 뒷사람의 범죄에 눈을 감거나 그런 상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조직의 진정한 명예를 위해 바른말을 하는 사람을 몰아내고 있다.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찰총장이 찍혀서 쫓겨나고, 경찰의 불법 대선 개입을 고발한 경찰감부 사표를 썼다. 군의 내부 부정과 비리를 고발한 엘리트 장교가 진급에서 탈락하고, 총리실 불법사찰을 고발한 양심적 공무원이 파면됐다. 황우석의 거짓을 폭로하여 나라의 체면을 세웠던 소신 있는 방송사 PD들이 해고, 좌천을 당했다. 자기 직업 세계에서 동료들에게 존경

받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밀려나 수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 정권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보면 삼권분립, 법의 지배, 정당정치, 대의제를 기초로 한 어떤 서구 근대정치학 이론보다 유교문화권의 인성정치 이론이 우리 현실에 더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해 본다.

즉 사법부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법부나 정당정치가 거의 무기력화 되고, 청와대와 공안기관이 모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현상을 그냥 민주주의 후퇴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교수신문에서 그해의 정치를 요약한 단어로 '당동벌이(黨同伐異)'를 선정할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오늘의 정치와 사회를 더 잘 설명해주는 말이 없는 것 같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국정원, 관료, 검찰 등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조직이 하고 있는 행태와 같다는 이야기다.

나는 옹고 그들의 여하간에 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무리의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는 당동벌이를 정치에 비교하면 '소인정치'라 부르고 싶다.

논어에는 '소인'의 특징을 논하는 수많은 구절이 있다. "군자는 두루 사랑하고

치우치지 않으며, 소인은 치우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소인들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꾸며서 합리화한다.(小人之過也, 必文)", "군자는 평탄하여 여유가 있고, 소인은 늘 격정스러워 한다.(子曰'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 등이다.

즉 소인들은 언제나 자기 이익이 행동의 동기이기 때문에 이익이 침해되고 권력을 잃을까 항상 초조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 공정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거나 편법을 저질러 왔기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원수처럼 미워한다. 자신에게 아부하고 충성하는 사람만 편애하며 자신의 허물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기교한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한다.

물론 인간 세상은 대체로 소인들이 성공하고, 그런 무리들에 의해 주로 움직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다.

상을 받거나 발탁되어야 할 사람이 처벌당하고, 처벌당해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출세하면 사회와 국가는 지탱될 수 없다. 뒷사람의 행동은 본이 되는 법이므로, 최상위의 소인정치 행태는 그 아래 모든 조직에 그대로 적용된다.

소인정치가 오래 지속되면 바로 19세기 조선의 문인 이응신(李應辰)이 그 시대를 묘사했던 '유속(流俗)' 현상, 요즘 말로 하면 관료들이 공익을 버린 세상, 세상 사람들이 처세와 출세, 즉 '먹고사니즘'에 따라 행동하는 세상이 된다.

이런 세상에서는 전쟁이 나면 병사들이 총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오히려 자기 상관을 향해 총을 쏘게 된다. 경제위기가 오면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들은 회사 비밀을 적대 기업에 팔아넘기고 이익을 쟁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강제병합, 한국전쟁, IMF 위기 직후와 같은 국가의 큰 난리 통에 어떻게 소인정치의 주역들이 백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유속'에 길들여진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 나라를 차갑게 배신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수하는지 지켜보았다.

장차 국가 대란이 또 닥치면 이러한 일은 거의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아니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았다.

소인정치에는 진정한 외교·국방·민생의 철학이나 정책도 없다. '안보'와 '경제'가 하나의 '기호'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떠돌아 댄다. 소인정치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정춘 특·특

기술과 감성 사이



김수아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부 석사과정

'시인은 오로지 시(詩)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오로지 노동만을 생각하고/ 법관은 오로지 법만을 생각하고...' (중략) (김광규 '생각과 사이',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중에서)

각자 자기 분야에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대학에 진학해 전공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한 분야의 틀에 가두는 경향이 있다. '난 인문학을 하는 사람, 넌 이공계를 전공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다. 대학에서도 그 틀에 맞춰 교육하고 전문화시킨다. 자신을 일정한

틀에 가두는 순간, 자기 전공 분야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야를 무시하기 쉽상이다. 다른 분야와 협업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 분야 사람들은 원래 그래'라는 편견이 작용할곤 한다. 이렇게 서로의 견고한 벽 사이에는 인간의 '감성적 요소'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인간의 감성은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 개발에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기계는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고, 연구·개발자들은 사용자 기기와 더 직관적으로 상호작용 하도록 인간의 감성을 고려해 기계와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대중이 애플에 열광하는 것은 '차기용 기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세심한 인간감' 때문이다.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서 출발하는 것. 이 철학이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변모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전공이라는 벽을 깨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교육받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계에서도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감성적 요소'를 놓치고 세세한 기술 개발에만 집중해 유용성 없는 기술

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IT 분야에서는 마우스와 키보드, 리모컨, 스크린 터치방식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매개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활발한 연구 중 하나가 카메라로 손가락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열을 올리는 연구자들과 달리 정작 사용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호기심 있는 사용자들이 이 기술을 한두 번 정도 사용해보지만, 대부분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기술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손을 정지한 들고 있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용자가 한 손가락으로만 클릭하며 오랜 시간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손을 더 크게 움직이며 힘들게 사용해야 한다. 즉, 이 기술은 '지속 가능성'과 '배려'라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감성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감성이 풍부한 연구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손쉽게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주변의 사소한 변화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아침 출근길에 화단에 핀 꽃이 무슨 색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느낌인지 되뇌어 보고, 퇴근길에는 골목을 밝혀주는 조명에 어떤 색의 빛인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세심히 살피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섬세한 관찰력을 기를 수 있다.

생물에 감정을 이입해 보는 것도 좋다. 말을 할 수 없는 생물의 감정이 어떻게 상상해 보고 그들의 시선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고 노력하다보면, 한껏 충전된 감성으로 다른 사람의 감성까지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자가 되지 않을까.

김광규 시인의 시 '생각과 사이'는 이렇게 마무리 된다.

'사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의 사이/ 법과 전쟁의 사이/ 전쟁과 공장의 사이/ 공장과 농사의 사이/ 농사와 관청의 사이/ 관청과 학문의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만// 휴지와/ 권력과/ 돈과/ 착취와/ 형무소와/ 폐허와/ 공해와/ 농약과/ 억압과/ 통계가// 남을 뿐이다.'

기고

11월11일은 가래떡데이



이상진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양곡자재팀장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土'자가 겹친 '土土土'를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1997년에 지정됐다. 또 이 시기는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쉬며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농협에서는 농업인의 날을 알리기 위해 매년 11월11일 에 가래떡데이 행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11월 11일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친구나 연인들끼리 빼빼로 과

자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가 더 잘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농협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가래떡데이 행사가 거듭 되면서 점차 우리 고유문화의 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11월 11일 만큼은 온 국민이 다 이어트는 아주 잠시 미뤄두고 우리 농민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쌀과 가래떡을 많이 드시기를 추천해 본다.

가래떡은 멥쌀가루를 찌서 반반에 놓고 매우 쳐서 둥글고 길게 늘어 만든 것이다. 모양이 길다고 하여 가래떡이라 부른다. 또 '가래'는 삼날 양쪽에 긴 줄을 때달아 한 사람은 삼자루를 잡고 양쪽 두 사람이 긴 줄을 당기며 흙을 파거나 고르는 우리의 전통 농기구인데 여기에 쓰이는 줄을 가래 줄이라고 한다. 떡을 가래줄 모양처럼 길게 손으로 비벼서 만들었다고 하여 가래떡이라고도 한다.

가래떡은 설날에 잘게 썰어 떡국으로 도 먹는데 가래떡처럼 가족들이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있고, 순백의

떡과 곡물로 묵은 때를 씻어 버리라는 의미와 가래떡의 둥근 모양이 동전을 닮았다 하여 재복을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이렇듯 가래떡에도 선조의 지혜가 담겨있다.

말랑하고 쫄득하여 군침이 절로 도는 가래떡 요리와 활용도도 다양하다. 매콤하게 졸여 먹는 국민간식 '떡볶이', 설렁과 꿀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가래떡 구이', 튀겨도 맛있는 '가래떡꼬치' 등이 인기다. 길고 쫄득쫄득한 가래떡은 특히, 수험생 응원에도 찰떡궁합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히 도시화와 산업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면서 농업 인구도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쌀을 주식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가래떡데이는 꼭 필요한 날이 아닐까 싶다.

올해 가을걷이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울리던 풍악소리를 들어 본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수확의 기쁨 보 다는 쌀을 둘러 쌓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당장 내년부터 20년간 잠겨있던 우리의 쌀 공간을 열어야 한다. 내년부터 관세만 풀면 누구나 쌀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 1인당 쌀 소비량이 최근 10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

5000만 국민 중 농촌에 뿌리를 두지 않는 이가 얼마나 될까.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다. 뿌리가 튼튼해야 잎과 줄기가 건강하여 꽃을 피울 수 있다. 농촌의 뿌리는 쌀이다. 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원천이다. 쌀소비 확대에 5000만국민이 나서야 한다.

패스트푸드보다는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목이 걸걸 할 땀 쌀 막걸리 한사발, 애들 간식으로 떡볶이요리를, 이처럼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쌀 소비 확대에 이여져 지금도 묵묵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社說

한·중 FTA 타결, 농수산 피해 최소화하라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전격 타결됐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FTA 체결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은 1413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 수출액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전체 교역 대상 품목의 90%가 즉시 관세 철폐 내지 20년 이내 순차적으로 없어진다. 교역은 더 활발해지고, 비교 우위의 품목 들로서 절충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협상은 상대가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 로선 농수축산물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중국 농수산물 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몰려오면 우리 농수산업은 꺾꽂없이 고사(枯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값이 싼 중국산 농수산물이 국내에 범람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다. 중국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액은 지난 2008년 28억2천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7억1천400만 달러로 5년 새 67.0%나 급증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쌀이 양허대상에서 완전 제외되고 농수산물 개방 수준도 역대 최저라고 말하고 있지만 농어업 분야의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한·중 FTA 발효시 농업 분야에서 15년간 한미 FTA의 2~5배인 29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이를 말해 준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FTA로 이득을 보는 부문에서 재원을 마련해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부채를 탕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어민들도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맞서 친환경·고품질화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약신도시 불법 건축물 단속 강화해야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 남약 신도시에서 무허가 증축 등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이 난무하고 있다. 원룸(다가구 주택) 쪼개기와 복층형 구조변경 등 불법·탈법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명품 신도시라는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복층형 구조변경은 상가 밀집 지역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본보 취재진에 따르면 일반주택·상가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1·2층 구조변경 공사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창고 등 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원룸을 투룸으로 쪼개는 공사도 여기저기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조 공사는 모두 불법이다. 남약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단독주택 주거지역(1층 상가·2~3층 주택)에서 '복층형'으로 구조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다가구 주택(원룸) '방 쪼개기' 공사도 마찬가지다. 속칭 '방 쪼개기'는 지난해 전남 지역 건축사(290명) 중 3명의 1인 101명이 무더기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고질적인 불법 건축행위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남약신도시는 전남 행정의 중심지로, 도청 등 공공기관만 76곳이 입주해 있다.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 신도시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점에 불법·탈법이 판을 친다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이는 물론 짧은 기간에 다소 조성을 목표로 양양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관리 감독 가능까지 약화된 탓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불법·탈법 건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다중이용시설을 불법·탈법 건축을 사전에 막는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인·허가 단계부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야신(野神·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의 야구를 보고 있노라면 팬이 아닌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야구를 하다보니 상대팀 입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2009년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던 해도 그랬다. 기아 타이거즈는 당시 김 감독이 이끌던 SK 와이번스와 만나면 매번 힘든 경기를 해야 했다. 타이거즈에 유리한 상황이 되면 투수를 바꾼다든지, 그라운드에 나와 항의를 하는 방식으로 경기 흐름을 끊어 결승까지 올리는 일이 잦았다.

그는 투수에게 완봉승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개인 기록보다는 팀 승리를 위해서라면 비정하다고 할 정도로 가치없이 마운드에서 내렸다. 그렇다보니 상대 팀으로부터는 스포츠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의 팬들에게 승리를 안겼다.

야신은 승리 청부사로 불린다. 태평양·쌍방울·LG 등 만년 하위 팀들을 맡아 상위권으로 끌어 올렸고 2007년 SK 와이번스 지휘봉을 잡은 뒤로는 6위였던 팀을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

으로 이끌었다.

그의 야구 철학은 일구어부(一球二無·두번째 공은 없다)라는 말에 응축돼 있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이 말은 '기회는 한번 뿐'이라는 의미로, 절박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가 야신을 초청해 조직을 강화게 만드는 리더십의 요체에 대해 들었다. 야신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250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리더의 자적에 대해 설교했다. "욕을 먹더라도 내 뒤에 있는 사람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리더라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기보다 특심있게 갈 것"을 주문했다. 또 "조직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결과없는 리더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신 리더십은 효율 극대화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발 독재형이란 비판적인 시각도 상존한다. 청와대가 이 시기에 야신에게 도움을 청한 것을 보면 위기상황이란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치는 야구와 달리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되새겼으면 한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청춘특독·기고 환영합니다

청춘특독·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